

## 보도자료

### 아이비스, Apex.AI 와 사업협력을 위한 MOU 체결

주식회사 아이비스(대표이사 남기모)는 최근 미국 팔로 알토(Palo Alto)에 위치한 에이펙스에이아이(Apex.AI)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 는 에이펙스에이아이가 아이비스를 한국 지역의 전략적인 기술 파트너로 인정함과 동시에 한국 지역의 사업에서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이비스는 디지털 클러스터와 같이 높은 수준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자동차 핵심 부품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그 동안 자동차 분야에서 쌓아 온 기술을 로봇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비스 로봇의 안전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던 중 에이펙스에이아이로부터 이에 대한 솔루션을 확인하고 양사 협력을 추진하게 되었다. 에이펙스에이아이는 ROS(Robot OS)의 초창기 공헌자인 얀 베커(Jan Becker)가 설립한 기업으로 자율주행이나 모빌리티에서 핵심이 되는 안전 인증 기반의 고신뢰성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양사는 수차례 실무 담당자 미팅을 진행하면서 양사의 기술력과 니즈가 상호 시너지가 있을 것을 확인하였고, 이후 아이비스 남기모 대표와 황정현 사업개발 총괄 전무, 에이펙스에이아이 얀 베커 CEO 와 테이비스 제토(Tavis Szeto) 사업개발담당 수석부사장이 TMM(최고경영자 회의)을 진행하면서 양사 협력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이번 MOU 체결과 계속되는 파트너십 계약 체결에 대하여 에이펙스에이아이 코리아 노성범 지사장은 “에이펙스에이아이의 한국지역에 대한 전략적 사업 확장이 가속화되는 훌륭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이비스의 황정현 전무는 “에이펙스에이아이와 협력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이번 MOU 는 아이비스가 기존 자동차 분야뿐만 아니라 로봇과 드론, 국방 등 안전과 신뢰성을 중시하는 인접 산업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서비스 로봇의 경우 자칫 동작 오류가 발생하면 직접적인 인명 피해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에서는 아직 규제나 안전 표준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에이펙스에이아이의 기술과 솔루션을 활용할 경우 관련 산업에 매우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 에이펙스에이아이 (Apex.AI) 회사 소개

에이펙스에이아이(Apex.AI)는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및 소프트웨어 정의 모빌리티로의 신속한 전환을 지원하는 안전 인증 기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국제적 기업이다. 이 회사의 소프트웨어 제품은 ROS(Robot OS) 또는 이클립스 아이소릭스(Eclipse iceoryx)와 같은 검증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다. Apex.AI 는 여기에 독자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기능 안전, 실시간 결정론, 완벽한 성능 등 상용 및 안전이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추가한다. 주력 제품은 자동차 등급의 신뢰할 수 있는 실시간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인 Apex.Grace 이다. Apex.AI 의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팔로 알토에 위치해 있으며, 독일 베를린, 뮌헨, 슈투트가르트, 스웨덴 예테보리, 일본 도쿄, 한국 판교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현재까지 Apex.AI 는 AGCO, 에어버스 벤처스, 가나안, 콘티넨탈 AG, 다임러 트럭, H 헬라 벤처스, 재규어 랜드로버의 인모션 벤처스, 라이트스피드, 오릴리온, 도요타 벤처스, 볼보 그룹 벤처 캐피탈, ZF 등 세계적인 벤처, 재무적 투자자(FI) 및 전략적 투자자(SI)로부터 7500 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다.

### 보도자료 문의

#### Apex.AI 한국

박윤희

한국 홍보 담당

+82 2 565 6625

[desiree.park@apex.ai](mailto:desiree.park@apex.ai)